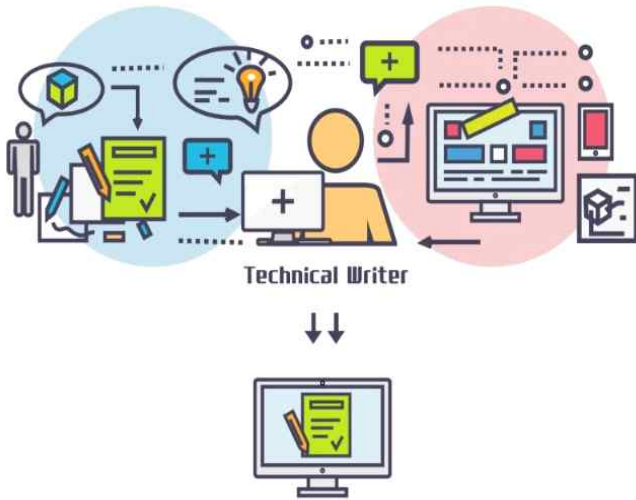


Technical Writer

소프트웨어나 전자제품 등의 사용설명서를 작성하는 직업



테크니컬라이터(Technical Writer)란

공학과 인문학의 융합 직업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관련 제품 사용자 설명서나 소프트웨어 도움말기능 등을 만들고 잡지에 기술을 설명하는 기고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테크니컬커뮤니케이터(Technical Communicator), 매뉴얼라이터(Manual writer), 테크니컬리스트(Technicalist)라고도 하며, 우리말로는 '기술문서작성자'라고도 한다.

출현 배경

우리나라에 테크니컬라이팅에 대한 개념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다. 특히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한 소비재와 기술 제품들이 생산되고, 해외 수출업체 및 B2B1) (소프트웨어, 전자/전기, 반도체, 시스템 등)분야의 기술 문서의 품질 향상이 요구되면서 사용법을 쉽게 기술해 주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1)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경제용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기업간 거래' 또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도 한다. 기업(business)과 기업(business)이 거래 주체가 되어 상호간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며, B2B의 '2'는 영어에서 'to'와 발음이 같은 숫자를 차용한 것이다. (두산백과)

주요 업무

테크니컬라이터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기술 문서 및 마케팅 문서들을 작성하고 리뷰 및 검증하는 일을 한다.

기술 문서는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술문서(규정 및 절차서, 연구소 개발 산출물 등)와 고객사에 전달하는 기술 문서(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래밍 가이드, 하드웨어 매뉴얼)가 있다. 기술 마케팅 문서는 기업의 마케팅들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발표 자료(제품 및 서비스 소개 자료, 특정 기술 소개 자료 등)와 고객사에 전달하는 마케팅 문서(브로셔, 제안서, 화이트 페이지, 마케팅 키트 등)를 말한다.

테크니컬라이터는 이런 기술문서 및 기술마케팅 문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계획(Planning), 초안 작성(Drafting), 수정(Revising), 편집(Editing) 및 교정(Proofreading) 절차에 따라 문서를 작성한다.

준비 방법

테크니컬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이해',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쓰기 능력', '해당 기술 관련 뛰어난 리서치 능력'이 필수이다.

1. 테크니컬라이터는 엔지니어나 개발자 수준의 기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독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IT의 경우 IT관련 전문지식과 집필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자(엔지니어 또는 개발자)에게 질문하여 독자에게 전달할 핵심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3.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림을 이용하고 글 쓰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고 때로는 외국어 능력을 필요한 경우도 많다. 테크니컬라이팅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은 대다수가 수출업체이므로 영문 라이팅이 수반되어야 하고 영문 라이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원어민 정도의 외국어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영문 기술 문서 작성은 일반 토익이나 토플의 에세이 작성 방법과 다르며, 독자의 기술적 수준이나 문서 작성 목적에 따라 작성 방법과 스타일이 다르므로 영문 테크니컬라이팅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테크니컬커뮤니케이터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 및 교육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 대학에서 기술 문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공학 글쓰기’와 같이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을 받은 후 바로 실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사)한국TC협회에서 실시하는 테크니컬 라이팅 관련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 최신 컴퓨터 및 인터넷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항상 학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평소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 지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직업에 들어서기 위한 좋은 준비과정이다.

전공학과

테크니컬라이터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전공은 국문학과, 영문학과, 전산학과, 전자공학과 등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기업체마다 요구하는 학력과 능력도 상이하다. 대졸 정도의 학력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며 외국어 능력을 필수로 여기는 곳도 있다.

[참고: 채용공고]

2018. 6. [한샘EUG] 영문 테크니컬라이터(TW) 모집

RECRUIT INFORMATION

영문 테크니컬라이터(TW) 모집

모집부문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원
테크니컬라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얼 작성 - 스마트기기, 각종 전자제품(기기) 등의 사용설명서 개발 - 사용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배치, 라이팅 	<p>[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 능력이 우수할 것 - 영어 작문 능력이 우수할 것 (토익 900점 이상) - 논리적인 사고 능력과 체계적인 업무 관리 능력 <p>[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 대회 수상자 - InDesign, Illustrator, Photoshop 프로그램 사용 경험자 - 영어 외의 외국어 (중국어) 가능자 	0명

근무여건 및 보수

테크니컬라이터는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등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기술잡지에 원고를 기고한다. 테크니컬라이터의 임금 또는 수입에 관한 통계는 없으며 기업체에 소속되어 근무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에 따라,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원고 기고 횟수나 본인의 활동여부에 따라 수입이 결정된다.

국내 현황과 전망

국내에서는 소수의 테크니컬라이터가 기업이나 기술문서 제작 전문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고, 기술 문서에 대한 보안의식이 높은 B2B 기업일수록 테크니컬커뮤니케이터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빈도가 높다. B2B 기업(소프트웨어, 전자/전기, 반도체, 시스템 등)의 경우 기술 문서 독자층이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이므로 국내 기업들은 경력이 있는 테크니컬커뮤니케이터를 고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테크니컬라이터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IT업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테크니컬라이터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한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반도체나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제품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마케팅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새로운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테크니컬라이터는 국가나 기업입장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출처] 1. 워크넷, 눈길끄는 이색직업, 과학/공학IT
2. 한양사이버대학교 공식블로그